

2005. 7

July

| 광 | 학 | 단 | 신 |

광학 신상품

삼성테크윈(주), 강력한 슬림형 디카 '#1' 출시



▶삼성테크윈에서 선보인 슬림형 디카 '#1'

삼성테크윈(대표 · 이중구)이 두께 17.3mm, 무게 133g의 슬림형 디카 1호인 '#1'을 선보였다.

#1은 Slim, Stylish & Smart라는 컨셉으로 탄생된 500만 화소 광학 3배줌으로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슬림형 시장에 대응하여 삼성테크윈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상품이다. 또한 삼성 디카 최초로 이너줌 방식을 채택하여 17.3mm의 슬림형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Anycall의 견고함을 생각나게 하는 스테인레스 Body는 타사 기종에서는 볼 수 없는, 긁힘이나 충격에 강한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색상에 대한 부분도 실버, 레드, 블랙, 및 그레이의 다양한 컬러로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더했다.

또한, 독자 기술로 선보이고 있는 SF (safety flash)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 촬영 시, 손떨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플래시를 사용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정확한 색표현이 가능하다.

삼성케녹스의 전통적인 강점인 동영상 (MPEG-4, VGA, 30fps)은 초소형 Body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중 광학 3배 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256M 기준으로 2시간 10분 이상 촬영이 가능하기에 캠코더 대응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iHub 기능을 탑재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나 #1을 통해서 Host PC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 즉, 디카를 통해서 Host PC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메모리 용량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되었다.

한국후지필름(주), 슬림형 '파인픽스 Z1' 출시

한국후지필름(대표 · 유창호)은 두께 18mm의 슬림형 디자인에 512만 화소, 광학 3배 줌을 지원하는 디지털 카메라 '파인픽스 Z1'을 출시했다.

'파인픽스 Z1'은 후지필름이 개발한 '리얼포트 테크놀로지'를 탑재해 얇은 두께에도 ISO 800의 고감도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무게는 130g이며 강화 유리 코팅된 2.5인치 LCD를 장착했다. 색상은 실버와 블랙 두 가지이며, 슬라이딩 렌즈 커버로 렌즈와 내장 플래시를 외부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다.



▶후지필름의 슬림형 디카 '파인픽스 Z1'

동원시스템즈(주), 500만 화소 디카 출시

동원시스템즈(대표 · 강병원)는 2.5인치 LCD가 장착됐고 5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일본 펜탁스의 디지털 카메라 '옵티오 S5z'와 '옵티오 S5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옵티오 S5z'는 VGA(640×480) 크기의 동영상을 MPEG4 방식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자체 편집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광학 3배, 디지털 4배 줌을 지원하며 7점 측거 멀티 자동초점 방식을 채택했다. 광학 렌즈 탑재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2cm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 출시된 '옵티오 S55'는 2.5인치 LCD, 광학 3배 줌 기능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

필터 기능으로 다양한 특수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고화질 컬러 디지털복합기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전문가급 고화질 컬러 디지털 복합기 '다큐 컬러 5065'를 출시했다.

이 신제품은 복사기·스캐너·프린터 기능을 모두 갖춘 컬러 레이저 복합기로 2400dpi의 고해상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생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분당 흑백 65매, 컬러 50매로 초고속 출력을 자랑하며, 용지 적재량은 한번에 최대 5,260매까지 가능하다. 월 평균 컬러 출력량도 2만 5,000매를 넘어선다. 출력 용지도 역시 크기에서 A3까지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메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10.4인치 대형 컬러 패널로 아이콘 조작만으로 원하는 작업 내용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후지제록스 관계자는 "이 제품은 블랙 토너를 두개씩 장착해 토너가 떨어져 출력이 중단되거나 용지가 걸리는 일이 없다"며 "올해 3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문가급 컬러 복합기 시장에서 이 제품을 주력으로 복합기 선두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에서 선보인 복합기 '다큐 컬러 5065'

한국후지제록스(주), 새 브랜드 '아페오스' 첫 모델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가 새로 도입한 브랜드 '아페오스(Apeos)'의 첫 제품을 선보였다.

후지제록스 그룹이 새로 도입한 '아페오스'

는 미래 사무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기기 제품군을 모두 통합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페르(APErre)'와 '오피스 시스템(Office System)'의 약자를 결합해 '무한히 열린 사무 환경'을 뜻한다.

한국·중국·싱가포르 등 후지제록스 그룹의 12개 해외 법인은 6월 7일 새 브랜드를 채택한 첫번째 제품으로 초고속·고해상도 컬러 디지털 복합기 첫 모델 '아페오스 포트'를 선보였다.

'아페오스 포트 C6550I·C5540I'는 디지털 복합기를 사내 네트워크는 물론 외부 인터넷과 연결해 스캔 파일을 바로 전송하거나 수신해 전자문서 관리와 공유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과 자유롭게 호환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조합해 기간 시스템 데이터까지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문서 출력 속도가 분당 흑백 65장, 컬러 50장으로 초고속 출력이 가능하며 첫 장 출력속도도 흑백 4.1초, 컬러 7.6초에 달한다. 출력 품질은 흑백·컬러 모두 2400×2400dpi로 레이저 컬러 프린터 중 속도와 이미지 해상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후지제록스가 새로 도입한 브랜드 '아페오스(Apeos)'의 첫 제품 'C6550I'

아남옵틱스(주), 니콘 D50 발매

아남옵틱스(대표·사길진)는 가족 단위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디지털 일안 렌즈 반사식(SLR) 카메라인 '니콘 D50'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고화질이면서도 초보자에게도 사용하기 편한 조작성, 휴대하기 쉽게 가벼워진 본체 등이 특징이다. 또 다양한 교환 렌즈나 각종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전문적인 촬영도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스냅' 모드를 탑재해 어린이의 피부를 생기고 예쁘게 재현하며 이외에도 스포츠, 클로즈업, 야경 인물 등 7종의 디지털 이미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다.

신제품은 새롭게 개발된 화상 신호 처리 엔진에 의해 선명한 색 재현, 풍부한 계조 표현이 가능하며 2.0인치, 13만 화소 저온 폴리 실리콘 TFT 액정으로 밝은 야외에서도 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밀 모니터를 탑재했다.

회원사 동정

신규회원 가입-특별회원(1개 사)

(주)제이엠씨글라스(대표·안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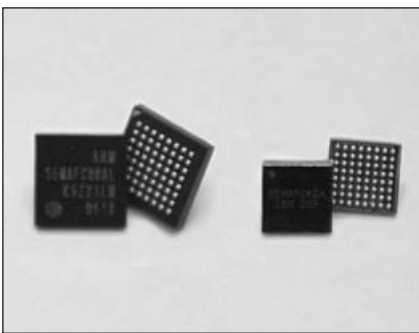
- TEL : (02)362-4343
- FAX : (02)362-4366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3-12
- 홈페이지 : www.jmcglass.com
- 주요품목 : Color Filter, Lens Blanks, 광학글라스 원자재, 필터 원자재, Quartz Glass, 특수 광학용 소재

삼성전기(주), 카메라폰용 자동초점, 광학줌 제어 IC 개발

삼성전기(대표·강호문)는 카메라폰의 부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제어하는 IC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부가기능 제어 IC는 카메라폰의 이미지센서와 ISP를 거쳐 들어오는 영상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프로세서이다. 기존 ISP 중에도 자동초점을 지원하는 일부 제품이 있었으나 처리속도

(20~40MHz) 및 인터페이스의 제한으로 정지화상의 자동초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프로세서는 ARM기반의 32bit 프로세서를 채용, 최대 처리속도가 120MHz로 정지영상은 물론 움직이는 피사체를 동영상으로 촬영 할 때도 자동 초점을 지원한다. 또한 Zoom 기능시 실시간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Auto Tracking이 가능하며, 피에조(piezo-압전 초음파), 스테핑 모터(steping motor), 음성코일모터(VCM), 액체렌즈(liquid lens) 등 광학 zoom을 구현하는 모든 액추에이터(Actuator : 구동체, 구동부)를 제어할 수 있다. 이밖에 IC내부에 64KB의 플래시 및 SRAM을 내장해 동영상 초점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으며, GPIO(General Purpose Input/Output Pin -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입출력 핀)를 보유해, 셔터, IRIS(조리개) 등 다양한 기능과 연결시킬 수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에 개발한 카메라폰용 부가기능 조절 프로세서는 3.5 X 3.6 mm의 초소형으로 카메라모듈에 바로 장착, 모듈과 함께 공급할 수 있어 카메라폰 제작공정을 한 단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기는 이번에 개발한 프로세서를 4분기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삼성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카메라모듈에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말 현재의 단순 부품, 단일모듈 위주의 사업에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모듈 사업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미래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카메라폰의 부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제어하는 IC

용어풀이

- ▶ **이미지센서** : 촬영한 이미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센서로 '필름'과 같은 역할
- ▶ **ISP** : 이미지센서에서 받은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기기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프로세서 (Image Signal Processor)

삼성테크윈(주), 신제품 발표 및 미래 비전 발표

삼성테크윈(대표 · 이중구)이 지난 5월 25일 서울 태평로빌딩에서 신제품 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도 선포했다.

이날 이중구 사장은 "2007년 1억대 규모가 예상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캐논, 소니에 이은 세계 3대 메이커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구 사장은 "IMF로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경쟁사보다 2~3년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히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슬림형 디지털 카메라인 신제품인 '#1'을 시작으로 삼성테크윈의 카메라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구 사장은 "최상위 품질과 브랜드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며 "매년 15종의 디지털 카메라 신제품을 출시해 2007년까지 1,200만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 시장 점유율 13%를 달성해 삼성 카메라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삼성테크윈은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주종 사업으로 육성, 현재 매출의 35% 정도인 비중을 2007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문태원 전무는 이와관련,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2~3년 내 포화가 예상돼 컨버전스 제품으로 교체 수요를 잡아야 한다"며 "내비게이션, DMB 등 그룹과 테크윈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디지털 카메라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은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받던

디자인 능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카메라 사업의 일류화를 위해 매달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삼성SDI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 2~3년 내 세계 시장 포화가 예상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삼성테크윈은 컨버전스를 적극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유일의 카메라 제조 업체인 삼성테크윈은 35mm 줌 카메라와 90mm 카메라에서 지난 1998년 영국, 네델란드, 스페인, 덴마크 시장에서 세계의 우수 카메라 업체 중 1위를 차지했고, EU 시장 전체로는 16%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미국 시장에서도 35mm 줌 카메라 부문에서 7,502대를 판매, 3.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1위를 달성했다.



▶ 삼성테크윈이 지난 5월 25일 서울 태평로빌딩에서 신제품 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삼양옵틱스, 돔 카메라 수출 계약 체결
카메라렌즈 전문 업체인 삼양옵틱스(대표 · 문영기)는 미국 포커스마이크로와 돔 카메라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제품은 삼양옵틱스의 카메라렌즈를 이용해 카메라 제조 업체인 씨프로가 만든 것이다. 수출 계약 금액은 35억 9,800만원이며 내년 1월까지 공급을 마칠 예정이다.

한국후지제록스(주), Innovate 05 디지털 프린팅 페어 개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 정광은)는 지난 6월 2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디지털 프린팅 스페셜 이벤트로 Innovate

05 디지털 프린팅 페어'를 개최했다.

국내 디지털 프린팅 인지도 확대 및 시장 증대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디지털 프린팅과 다이렉트 마케팅 관련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1:1 마케팅의 중요성과 주문형 인쇄 시장 트렌드, 디지털 프린팅에 맞는 디자인 트렌드 등 경영관리자, 디자인 전문가, 인쇄·출판업자 등 각 고객별로 특화된 세미나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전세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Innovate는 제록스가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디지털프린팅 시장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후지제록스 그룹은 올해 최초로 이 행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도입, 지난 3월부터 'Innovate 05 Workflow Partner Fair'라는 제목으로 홍콩, 호주, 대만, 중국 등을 돌며 이미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어 한국에서도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국후지제록스의 황흥국 이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1:1 다이렉트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인쇄시장 역시 디지털 프린팅을 통한 주문형 인쇄 서비스를 통해 선진 마케팅의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인쇄시장이 인쇄작업 자체에만 연연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케팅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던 한국후지제록스의 'Innovate 05 디지털 프린팅 페어' 행사 광경

한국후지제록스(주), 2005 정기 주주총회 개최 및 임원인사 단행

한국후지제록스(대표·정광은)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3회 이사회를 열고 정광은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손문생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정광은 회장은 최고 경영책임자이자 이사회회장을 겸해 의사 결정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영업 총괄 책임자인 손문생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영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98년 이래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았던 다카스기 노부야 전 회장은 최고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한편, 국내영업본부장에는 김제수 전무, 개발생산본부장에는 김영철 전무가 각각 선임되었고 정송학, 이주홍, 박순권, 김수영, 황인태 등 5명이 상무로 선임되었다.

한국후지제록스 측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시장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리 조직을 슬림화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후지제록스의 정광은 대표이사 회장



▶한국후지제록스의 손문생 대표이사 사장

광학인포메이션

특허청, 2005년도 업종단체별 지식재산권 설명회 개최

한국광학기협회는 특허청과 지식재산

권 업무협력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특허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본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2005년도 업종단체별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실시한다.

본 협회가 주관하고 특허청 주최로 열리는 금번 설명회는 연말까지 총 40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장소는 설명회 신청 업종단체 및 기업의 회의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동 설명회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본 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 : 한국광학기협회
(02)3481-8931

광학뉴스라인

본 란에는 '광학세계' 편집부에서 직접 취재한 일부 기사와 함께 일간지, 잡지,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기사 중에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날짜와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학세계'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카메라 및 이미지

DSLR카메라업계 '가격공세'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 카메라 업계의 가격 공세가 더 한층 거세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논이 지난 3월 보급형 DSLR 카메라 'EOS-350D'를 기존 모델보다 약 10만원 가량 저렴한 129만원에 출시한 데 이어 니콘과 펜탁스도 조만간 과거 모델보다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을 낮춘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DSLR 카메라 가격이 200만원대가 무너지면서 수요가 2배 이상, 많게는

3배까지 늘고 있던 터라 이번 가격 하락은 DSLR 카메라의 시장 확대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DSLR 카메라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일본 니콘 국내 총판인 아남옵틱스는 610만 화소를 지원하는 DSLR 카메라 '니콘 D50'을 렌즈 포함 110만원 미만에 판매할 계획이다. 카메라 몸체만 구입 시에는 100만원 미만으로 기존 니콘의 보급형 DSLR 카메라 'D 70s'나 'D70'보다 10만~20만원 가량 저렴해졌다.

지난해 11월 보급형 DSLR *istDS'를 국내 첫 출시한 일본 펜탁스도 후속 모델인 *istDL'을 7~8월에 국내 총판인 동원시스템즈와 쥘센코리아를 통해 렌즈를 포함해 100만원 미만에 시판할 예정이다.

DSLR 카메라 가격이 점차 저렴해 지는 이유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들을 흡수하려는 메이커들의 전략 때문. 디지털 카메라 저변이 늘어나면서 고급 기종에 대한 관심 증가도 이들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카업계 '어둠과의 전쟁' 선포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실내에선 빛의 양이 부족해 대부분 플래시를 사용해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플래시를 쓰면 피사체가 야한 것과 달리 배경이 어두운 어색한 사진을 찍게 된다. 그렇다고 플래시를 쓰지 않으면 카메라가 흔들려 선명하지 못한 사진을 얻기 일수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자들로서는 원치 않는 '덜레마' 해결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업계가 고감도를 지원하거나 손 떨림 방지 기술들을 채택하고 있어 화제다.

한국후지필름이 최근 출시한 '파인픽스 F10'은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로서는 드물게 감도 1600을 지원해어두운 곳에서도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감도 400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리코의 'GX8'이

란 모델은 감도 1600을 지원하고 있어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고감도 촬영 기능 지원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도를 높이는 대신 삼성테크윈은 독자 기술인 'SF(Safety Flash)' 기능으로 보완하고 있다. 'SF' 기능은 셔터를 한 번 누르지만 두 번 촬영한 것처럼 고감도로 촬영한 이미지와 저감도로 촬영한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고감도 촬영에서는 흔들림 없는 피사체를, 저감도에서는 물체의 색감과 질감을 잡아내 어두운 곳에서도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무기기

삼성전자 "기업용 디지털 사무기기 공략"

삼성전자가 기업용 디지털 사무기기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은 그동안 레이저 프린터를 주력으로 주로 소비자 시장을 공략해 왔으며 이번에 기업 수요를 겨냥한 중대형 복합기 제품군을 대폭 강화해 전통 사무기기업체인 신도리코·롯데캐논은 물론 한국 HP와 기업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국내영업사업부 장창덕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 컬러 디지털 복합기 등 신제품 5종을 새로 선보이고 중대형 복합기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복합기 제품과 관련 그동안 흑백 1개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에 컬러 복합기를 대거 출시하면서 포토 프린터에서 중대형 흑백과 컬러 제품까지 디지털 사무기기 모든 라인 업을 갖추게 됐다.

삼성이 선보인 컬러 복합기는 분당 최고 45장의 인쇄와 복사가 가능한 고속 제품으로, 9.1인치 국내 최대 액정(LCD) 창을 갖췄다. 또 랜(LAN) 등 네트워크는 물론 40GB이상의 하드디스크(HDD) 등을 사용해 중·대형 사무실에 적합하다. 이 제품은 복사·프린터·스캔·팩스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입력 문서를 저장하고, 재출력이나 PC 다운로드를 통해 입·출력 문서를 관리하는 통합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문서 보안 등 사무 환경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선보인 삼성의 첫 디지털 복합기 'CLX-7450'은 흑백문서 분당 45장, 컬러문서 분당 11장의 고속 복사·출력 기능을 갖추고 60GB의 HDD와 333MHz의 CPU를 탑재했다. 단순한 프린팅 기기라기 보다는 소형 컴퓨터를 내장한 지능형 컬러 문서 관리 시스템이다. 컬러 복합기이면서 크기가 흑백 복합기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컬러 토너와 분리된 흑백 토너를 따로 지원해 흑백 문서 인쇄시에 흑백 토너만 사용해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제품 자체에 HDD가 있어 문서를 저장한 후 컴퓨터 연결 없이 출력할 수 있고 예약 복사·인터넷 팩스·팩스문서 전자 수신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고속 컬러 디지털 복합기 등 신제품 5종을 새로 선보이고 중대형 복합기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오키데이터, 국내 프린터 시장 공략

세계적인 디지털 사무기기업체인 일본 '오키데이터(OKI Data)'가 국내 컬러 프린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아주포커스는 지난 5월 25일 오키데이터와 손잡고 국내 소비자 시장을 겨냥한 컬러 프린터 신제품을 대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키 제품은 조달과 공공 시장에 일부 선보인 적은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키는 이번에 컬러 프린터를 주력으로 속도와 가격 대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

다. 먼저 속도가 빠른 데스크톱 컬러 프린터 'C3200', 기업 시장을 겨냥한 초고속 컬러 프린터 'C7350', 'C9600', 보급형 A4 컬러 복합기 'C5510' 등을 출시한다.

코니카미놀타 유통망, 태흥아이에스로 통합



▶태흥아이에스가 지난 5월 19일 대전 유성에서 일본 코니카미놀타 관계자와 280여 개 대리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복합기 시장 확대를 위한 전진 대회를 열었다.

세계적인 디지털 사무기기 업체인 코니카미놀타의 국내 복사기·복합기 유통망이 태흥아이에스로 전면 통합됐다.

태흥아이에스(대표·김양기)는 지난 5월 19일 대전 유성에서 그동안 분리돼 운영되던 미놀타 복합기 사업 영역을 흡수하고 일본 코니카미놀타사와 첫 통합 회사의 출범을 알리는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코니카미놀타 국내 영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코니카 제품은 태흥아이에스에서, 미놀타 제품은 인포믹스 사로 나눠져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 코니카와 미놀타가 합병했음에도 제품과 유통 채널이 혼재됐으며 이번에 태흥아이에스로 단일화되면서 코니카미놀타는 국내에 새로운 복합기 유통망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태흥아이에스는 이번 통합에 따라전국에 280여 개 대리점을 두고 공격 마케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회사 김양기 사장은 "유통 채널 뿐 아니라 제품 라인업도 새로 갖춰 국내 시장에서 코니카미놀타의 브랜드를 적극 알릴 나가지겠다"라며 "기업과 조달 시장을 적극 공략해 오는 2007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올려 놓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태흥아이에스는 흑백(모노)와 컬러

디지털 복합기 모델을 10여 개로 늘리고 서비스 망도 크게 확충키로 했다. 또 본사인 코니카미놀타와 손잡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브랜드를 알릴 나갈 계획이다.

태흥아이에스는 91년 프린터 전문업체로 설립돼 일본 오키 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고속 도트 프린터를 개발했으며 이 후 디지털 복합기 뿐 아니라 레이저 프린터와 대형 시스템 프린터 등으로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는 디지털 사무기기 전문업체다.

한국HP, 첫 컬러 레이저젯 복합기 출시

100만원대 컬러 레이저젯 복합기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한국HP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소공동 조선히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스마트 오피스를 겨냥한 '컬러 레이저젯 복합기 2800'을 출시했다. 그동안 컬러 복합기 시장은 700만~1000만원대 복사기 기반의 복합기 제품이 주도해 왔으며 100만원대의 프린터 기반 복합기가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품은 소규모 비즈니스 사업자·소호·중소기업에 필요한 인하우스 마케팅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전문적인 포토 프린팅, 이미지와 프린팅 자원 관리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또 네트워크 센딩을 통해 문서를 전송할 수 있으며 스캔·인쇄·복사·팩스 전송·사진 출력·디지털 전송 등 6가지 기능을 기기 하나로 통합했다.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 이 제품은 흑백 인쇄는 20ppm, 컬러인쇄는 4ppm이며 인스턴트-온 기술로 첫 번째 페이지를 프린트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흑백 인쇄 18초, 컬러 인쇄 29초의 빠른 속도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포토 프린터 '춘추전국시대'

디지털 카메라 보급과 맞물려 포토 프린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 업체가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기존 업체들도 '포토 프린팅'을 지원하는 제품 중심으로 라인업을 재편하고 시장 수성에 나서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포토 프린터 시장규모가 2002년 4만대에서 2003년 7만대, 지난해 15만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25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올해 들어 HP·엡손·캐논 등 전통적인 프린터 업체의 독무대였던 포토 프린터 시장에서 새내기 업체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초 픽트브리지 기능이 탑재된 포토 겸용 복합기를 첫 출시한 데 이어, 상반기안에 2종의 모델을 새로 추가한다.

필름업체로 잘 알려진 후지필름도 휴대용 포토 프린터 '피비MP-100'을 출시하고 포토 프린터 시장에 새로 뛰어 들었다. 피비는 무선 데이터 송수신과 픽트브리지 기술을 지원해 디지털 카메라나 카메라폰과 바로 연결해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 이 회사는 TV홈쇼핑 등을 통해 카메라와 프린터를 패키지로 묶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 프린터를 묶어 '이지세어 디지털 포토 솔루션'을 출시하고 프린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코닥도 블루투스 제품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서 기존 업체들도 포토 기능 위주로 프린터 라인업을 새로 구축하고 있다. 롯데캐논은 지난해 10월부터 '픽스마'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모든 제품에 포토 프린터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다. 픽스마는 올 들어 인기를 끌면서 지난 1분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40% 가량 증가했다. 롯데캐논 측은 올해 말까지 포토 기능이 탑재된 7~8종의 잉크젯 프린터군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국HP도 지난해 말부터 포토 프린팅 기능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포토 프린터 기능 제품군을 전체의 90%까지 끌어올렸다. HP 측은 "잉크젯과 복합기 라인업의 90% 이상이 포토 레디(Photo-ready) 제품"이라며 "HP 비베라 잉크와 포토용지 패키지인 'HP 포토 밸류팩'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홈 프린팅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본사 차원에서 프린터 분야

를 3대 전략사업으로 정한 한국엡손도 8종 포토 프린팅 제품에 새로 4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엡손, 프린터 신제품 출시 국내시장 공략 강화

국내 프린터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엡손코리아가 신제품 6종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국내시장공략에 나섰다.

엡손코리아는 지난 6월 16일 서울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레이저 복합기 2종, 전문가용 A3 포토프린터 2종, 대형프린터 2종 등 총 6종 프린터를 선보이는 '2005 상반기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다. 엡손코리아는 이날 현재 디지털 포토 제품군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디지털 포토 제품군을 중심으로 펼치던 고급화 전략을 계속해 경쟁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히라이데 슌지 대표는 "시장에서 컬러 복합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 부문 신제품을 가지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기업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품을, 전문가용은 뛰어난 잉크기술을 바탕으로 포토프린터와 대형프린터 신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린터시장, 삼성전자·한국HP 등 선발업체와 각축전

한국HP, 삼성전자, 엡손코리아 등이 주도해온 국내 프린터 시장에 후발 외국계 기업들이 도전장을 던지는 등 국내 프린터 시장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조달과 공공 시장에 이어 일반 소비자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세계적인 프린터 업체 '오키'를 필두로 최근엔 세계 2위 프린터 업체인 렉스마크도 국내에 상륙했다. 앞서 델컴퓨터도 프린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처럼 세계적인 프린터 업체들이 국내 프린터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가장 큰 이

유는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국내 프린터 시장이 '컬러'와 '복합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대체 수요뿐 아니라 신규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프린터 시장을 지배해오던 선발 프린터 업체들도 수성 전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드웨어 제품 중에서 프린터 부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컬러 레이저프린터 부문과 기업용 제품군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 프린터 솔루션 영업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CLP-510', 'CLP-510N' 등 컬러 레이저프린터 2종과 잉크젯 복합기 등 잉크젯 제품 4종을 출시했다. 소규모 사업자와 중소기업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복합기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HP는 컬러 레이저프린터와 포토프린터에 주력할 방침이다. 본사가 전세계적으로 프린터 사업을 강화하는데 발맞춰 지난해 10월 이후 25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한편, 한국 렉스마크는 국내 시장 진출과 발맞춰 중소기업 고객들을 위한 기본형 흑백 레이저 프린터인 E시리즈부터 컬러 레이저 프린터인 C시리즈에 이르는 총 20여 종의 모델을 출시했다.

세계 프린터 시장 2위 렉스마크, 국내시장 진출

세계 프린터시장 2위 업체인 렉스마크인 테내셔널이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렉스마크 국내법인 한국렉스마크는 지난 6월 9일 조선히텔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레이저프린터·복합기 제품군을 필두로 국내시장에서 브랜드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렉스마크 윤상태 사장은 "렉스마크는 보급형 잉크젯에서 기업용 컬러레이저복합기까지 프린터·복합기 전 제품군을 보유, 세계시장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프린터 전문기업"이라며 "국내시장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고 사후 서

비스(AS)·고객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첨단 맞춤형 솔루션·서비스 제공에 주력, 2년 내로 국내 3위 프린터업체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렉스마크 에디노엘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한국사업은 향후 성장엔진으로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렉스마크는 우선 20만원대 보급형에서 수백만원대 하이엔드 기업용까지 20여종의 흑백·컬러 레이저 제품군을 먼저 출시하고, 향후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시장에 치중하며 레이저 시장 공략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윤상태 사장은 이번 국내 진출에도 불구하고, 제휴사 신도리코·델과의 협력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신도리코·델과) 일부 시장이 겹치기도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서로 고유의 시장영역을 갖고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실제로 델 ODM사업 이후에도 자체브랜드 사업의 고성장이 계속되면서 ODM 매출비중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도리코는 지난 2001년부터 렉스마크에 주문자설계생산(ODM)방식으로 레이저 프린터를 수출하면서 국내시장에서는 자체브랜드로 영업해왔으며, 델은 렉스마크 ODM 프린터를 미국·유럽·일본시장에 자체브랜드로 공급중이며, 한국법인 델인태내셔널을 통해 조만간 국내에 시판할 예정이다.

후지제록스, 새 브랜드 '아페오스' 첫 모델

한국후지제록스가 새로 도입한 브랜드 '아페오스(Apeos)'의 첫 제품을 선보였다.

후지제록스 그룹이 새로 도입한 '아페오스'는 미래 사무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기기 제품군을 모두 통합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페르(APerire)'와 '오피스 시스템(Office System)'의 약자를 결합해 '무한히 열린 사무 환경'을 뜻한다.

한국·중국·싱가포르 등 후지제록스 그

룹의 12개 해외 법인은 지난 6월 7일 새 브랜드를 채택한 첫번째 제품으로 초고속·고해상도 컬러 디지털 복합기 첫 모델 '아페오스포트'를 선보였다.

'아페오스포트 C6550I·C5540I'는 디지털 복합기를 사내 네트워크는 물론 외부 인터넷과 연결해 스캔 파일을 바로 전송하거나 수신해 전자문서 관리와 공유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과 자유롭게 호환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조합해 기간 시스템 데이터까지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문서 출력 속도가 분당 흑백 65장, 컬러 50장으로 초고속 출력이 가능하며 첫 장 출력속도도 흑백 4.1초, 컬러 7.6초에 달한다. 출력 품질은 흑백·컬러 모두 2400×2400dpi로 레이저 컬러 프린터 중 속도와 이미지 해상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광학부품 및 반도체 레이저

2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하반기 양산

미국 마이크론이 최신 상보성 금속산화물 반도체(CMOS) 방식 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국내 카메라모듈 업체들은 이에 따라 3분기부터 카메라모듈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임정기 마이크론코리아 지사장은 "5월 초부터 2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시제품이 출시됐으며 국내에는 5월 말부터 고객에게 전달했다"며 "충분한 물량을 국내에 공급해 카메라모듈 업체의 양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시그널 프로세서(ISP)가 통합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ISP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카메라모듈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선양디엔티 이종건 상무는 "새로 나온 마이크론의 이미지 센서는 기존 제품에 비해 15%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크기도 1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디엔티는 9월 양산을 목표로 휴대폰 업체와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 역시 자동초점이나 광학 줌 등 부가 기능 개발은 완료한 상태다.

한성엘컴텍도 오는 9월에 자동초점 등 부가 기능이 들어 있는 CMOS 방식 200만 화소 제품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LG전자에 공급될 예정이다.

부품업체들 '간판제품' 바꾼다

부품업체들이 저가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력제품을 바꾸는 변신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아크릴 전문업체가 LCD 확산판 전문업체로, 전자파차폐재 업체가 카메라모듈용 CMOS 이미지센서 업체로 변신하는 등 업체들이 간판 제품을 아예 바꿔 수익 창출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세화폴리텍, 세일전자 등 기존 제품이 중국산 대거 유입이나 과당 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가격이 떨어지자 고수익 창출을 위해 개발했던 첨단 부품을 주력제품으로 내세웠다. 이들 업체가 개발, 매출을 올리는 품목은 대부분 시장이 커지는 카메라폰이나 디스플레이용 부품들이다.

아크릴 전문업체인 세화폴리텍은 최근 LCD TV에 들어가는 확산판과 도광판 매출이 50%를 넘어서면서 주력품목을 LCD 부품으로 전환했다. 세화폴리텍은 중국공장을 완공하면 올해 LCD 부품분야에서 지난해의 매출의 두배 가량인 65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업체의 지주회사인 유펠스도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전자부품 유통에서 세화폴리텍의 지주회사로 변신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유펠스의 기존 품목은 2003년 약 180억원, 2004년에는 2억3000만원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부터는 이 분야 사업을 정리했다.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세일전자도 지난 20년간 주력해온 경성기판 중심에서 탈피,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연성기판(FPC)과 경·연성(RF)기판 사업을 크게 강화했다. 카메라폰·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등 휴대형 정보기기에 들어가는 FPC 및 RF기판 생산을 확대, 경성기판 전문업체에서 종합 PCB 메이커로 변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비투자를 단행, 월 1만5000㎡ 규모의 연성기판 전용 라인을 새로 구축했다. 이 회사는 FPC 및 RF 부문에서만 작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16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에이엠아이씨 전자파차폐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카메라모듈용 CMOS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용 엘코스(LCoS)칩 모듈 등의 조립·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로 전환을 추진했다. 2년만에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매출의 40% 이상을 올리고 있으며 LCoS 모듈 사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 사업을 강화, 전문업체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화소 카메라모듈 광학 줌 방식 대세에 관심 집중

카메라폰의 이슈가 화소 경쟁뿐 아니라 자동초점이나 광학 줌 등 성능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가능케 만드는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동초점이나 광학 줌 방식은 압전 피에조와 보이스코일 모터, 스테핑 모터 등 3가지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아직 혼전을 이루고 있다.

전압 차이를 이용해 렌즈를 움직이는 압전 피에조 방식은 카메라모듈을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다. 전력소모도 적은 편이지만 충격에 약하고 납 성분이 들어 있어 앞으로 환경 규제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게 단점이다.

렌즈 경통 주변에 감은 코일의 자기장을 이용하는 보이스코일 모터 방식은 크기가 작은 편이고 내구성도 강하지만 계속 전기를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많은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모터를 이용해 렌즈를 옮기는 스테핑 모터 방식은 전력 소모가 매우 적은 반면 별도의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를 줄이기 어렵다. 온도

가 낮으면 모터가 잘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

카메라모듈 업계에서는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인해 전문 업체들은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위기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카메라모듈 업체들은 세가지 기술을 모두 개발하고 있다

신안SNP, 메가픽셀급 카메라모듈용 적외선 차단 필터 개발

신안SNP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가픽셀급 카메라모듈용 적외선 차단 필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적외선 차단 필터는 렌즈와 이미지센서 사이에 위치, 적외선은 걸러내고 가시광선만 센서에 도달케 하는 부품이다. 이 필터가 없으면 센서가 색상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없다. 이 제품은 플라즈마 방식으로 이온을 코팅해 균일도를 높여 메가픽셀급 카메라모듈용으로 개발됐다. 국내에서도 적외선 차단 필터를 생산해왔으나 대부분 VGA급이었고 메가픽셀급용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신안 SNP가 양산에 돌입하는 7월부터는 메가픽셀급 카메라모듈용 적외선 차단 필터의 국산화 대체가 가능할 전망이다.

후발 카메라 모듈업체들 시장 연착륙

작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했던 후발 카메라모듈 업체가 잇따라 거래처를 확보, 시장에서 기반을 마련했다.

카메라모듈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기와 삼성테크윈, 한성엘컴텍, 선양디엔티의 4강 구도가 정착, 이들 후발 업체는 대형 휴대폰 업체들을 거래처로 잡지 못해 주문자상표부착(OEM) 제조 업체에 30만 화소 제품을 소량 공급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씨넥스와 파워로직스와 같은 후발 카메라모듈 업체가 팬택계열이나 KTFT 등 휴대폰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 LG이노텍도 고급형 제품 개발을 마치고 텃밭인 LG전자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엠씨넥스는 팬택계열에 130만 화소 카메

라모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오는 10월에는 국내 최소 크기의 제품을 양산, 팬택계열에 추가로 납품할 예정이다. 130만 화소 이외에 30만 화소 제품도 함께 들어가고 있다. 엠씨넥스는 작년 4월 설립된 신생 업체인데 올해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파워로직스는 KTFT를 고객으로 잡았다. 보호회로 전문업체로 입지를 굳힌 파워로직스는 작년 카메라모듈 시장에 진출한 후 최근 KTFT에 130만 화소 카메라모듈을 공급, 시장에 연착륙했다. 이 회사는 단일조점 130만 화소 제품 이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광학 줌 130만 화소 제품도 KTFT에 판매했다.

LG이노텍도 30만 화소 제품에 이어 최근 130만 화소 카메라모듈을 개발, LG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캡티브마켓인 LG전자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카메라모듈 전문 인력 영입을 시작했으며 초고화소 카메라모듈 개발에도 착수했다.

국내뉴스

부품소재진흥원 7월 중 공식 출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하 부품소재진흥원)이 7월중 공식 출범한다. 산자부는 지난주 부품소재진흥원 창립이사회를 열어 사옥 및 인력 구성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된 데 이어 조만간 초대 진흥원장 추천을 위한 별도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장 인선과 사무실 마련 문제로 부품소재진흥원 출범이 당초 예정보다 1~2개월가량 지연됐다"라며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별도 이사회를 통한 원장 선임과 법인 등록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대 부품소재진흥원장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산자부 관계자는 "대기업 부품업체출신을 비롯해 정부산하 연구기관, 벤처 캐피털 등 금융권 인사들이 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라며 "이 가운데 3명 정도가 최종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초대 원장이 진흥원의 안정적인 출범과 동시에 타기관과의 조직 및 역할 조정도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는 점에서 민간 기업과 정부 출신 후보들을 놓고 상당기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관 및 업계는 최근의 공공기관 분위기와 부품·소재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삼성전기 등 대기업 출신 민간 전문가의 초대 원장 발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소재진흥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표준원 등 주요 부품·소재 관련 기관들로부터 출자 또는대출받은 60억 원 가량의 자금으로 이미 강남 서초동 인근에 사옥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진흥원 출범과 초대 원장 취임, 그리고 사옥 입주 등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흥원이 추진할 올해 사업 계획과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창립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소재 업계 관계자들은 "부품소재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동안 개별 부품·소재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맡아 왔던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기관간 역할 분담이 진흥원의 위상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뉴스

1분기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일본 '약진' 한국 '주춤'

10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지난 1분기에 일본기업은 약진하고 국내기업은 주춤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샤프, 산요옵슨, 도시바마쓰타디스플레이(TMD) 등 일본 메이저 3개사의 시장 점유율(매출기준)은 전분기에 비해 1.5% 포인트 증가한 반면 국내 업체들은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 1위 업체인 샤프는 소니의 PSP 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한 데 따라 시장 점유율이 18.2%로 전분기 대비 0.2% 포인트 증가했다. 산요옵슨과 TMD는 각각 0.7%, 0.6% 포인트 증가한 12.4%, 9.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2, 3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SDI는 주력 제품인 STN 판매 감소로 8.7%의 시장 점유율로 4위로 밀려났다. 삼성전자는 전분기 대비 0.1% 포인트 높여 8.2% 점유율을 차지, 필립스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일본 기업들은 휴대폰에서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차량용 등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선전했다.

국내 기업들은 대만업체들의 진출로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해진 휴대폰 분야에 치중돼 매출액이 줄거나 소폭 느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본기업들은 정부의 권유로 자국산 부품 구매를 확대·약진에 탄력을 받았으나 국내기업들은 한국산 휴대폰과 경쟁하고 있는 주요 해외 거래선들이 견제에 나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으며 전분기보다는 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응용 제품별로는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34억 달러를 기록, 70%를 차지했으며 게임기(4억달러), 디지털카메라(3억 1700만달러), PDA(2억 3100만달러) 순이었다.

한편 삼성전자는 PMP 등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중소형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삼성SDI는 TFT 매출 확대, LG필립스 LCD 역시 저온폴리(LTPS) 제품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한·일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시아 디지털카메라 판매 작년 40%나 '깎춤'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카메라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1060만대로 2003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IDC는 한국과 호주, 중국 등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빅3가 이 같은 실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5년간은 인도와 중국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AFP는 이들 지역이 올해부터 2009년까지 각각 연평균 50%와 26%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디지털 카메라 업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향후 2년간 점유율 확대 경쟁이 전쟁을 불사할 만큼 치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매기 탄 IDC 디지털 이미징 프로그램 부문 이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1~2년 동안 디지털 카메라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HP와 코닥, 옵슨 등의 업체와 더불어 특히 저가 시장에서 대만 브랜드와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논, 카트리지 공장에 800억 엔 투자

일본의 캐논은 프린터와 복사기용 카트리지와 잉크를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건설하는데 8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캐논이 일본 남서부 오이타현에 건설할 새 공장은 보유 공장 중 최대급으로 2007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트리지는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논의 복사기나 프린터 판매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동반 증가해 이익률이 높은 캐논의 기간 사업이 되고 있다.

캐논은 오이타현으로부터 40만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 2006년 봄에 착공을 계획중이다. 공장 부지는 캐논의 디지털 카메라 생산 자회사인 오이타 캐논 사업소와 인접한 곳으로 선정됐다.

캐논이 일본에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에는 고도의 제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광학세계』 원고모집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모집 안내 ...

1. 원고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수필 등
2. 원고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마감 : 수시 접수중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 Tel. (02)3481-8931
- Fax. (02)3481-8669